

弘報室 : (02)
6050-3602~5

이 자료는 2/25(火)자 夕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2/25(火) 06:00부터

※ 문의 : 동향분석팀 손영기 팀장(02-6050-3442), 민경현 대리(02-6050-3443)

국내기업 49% “테이퍼링영향 없거나 긍정적” ... “금리안정 원해”

- 대한상의 1·2월 두 차례 조사 ... “韓경제 펀더멘탈 강해 단기적 충격 크지 않을 것”
- ‘수출 증가’(52%) 기대, ‘경제불안심리에 따른 내수위축’(33%) 우려 상존
- 기업 60% “현재 경영환경 좋지 않아” ... “올해 매출 지난해와 비슷” 46%
- 商議 “내수경기 활성화와 규제완화 위한 정책노력 필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Tapering)가 국내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한 전망이 팽팽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국내기업들은 테이퍼링이 별다른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리란 예상을 내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올해 1월과 2월 두차례에 걸쳐 전국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기업 경영 환경과 정책과제 조사’를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중 4곳은 미 테이퍼링이 기업경영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37.4%→36.3%)이라고 답했고, ‘긍정적인 영향’(15.6%→13.2%)을 예상한 기업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테이퍼링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은 1월 조사 47.0%, 2월 50.5%로 집계됐다.

대한상의는 “1월 하순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둔화와 아르헨티나, 터키 등 신흥국의 일시적인 경제불안 증폭이 겹치며 2월 조사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불안감이 다소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신흥국과 달리 국내경제는 경상수지나 재정수지가 양호하고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가 안정된 상황이라 테이퍼링이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테이퍼링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리라 예상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수출 증가(52.3%), '경제 불확실성 해소(26.5%), '대외투자 수익개선(14.4%) 등을 차례로 꼽았다. <기타> 7.6%, 복수응답>

“수출가격 경쟁력 향상해 하반기 수출 10% 증가 예상”

의료용 카메라를 수출하는 A사는 지난해 환율하락에 의한 수익성 감소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를 고려하여 하반기 경영계획을 세워보니 원/달러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 가격경쟁력 향상과 세계경제의 회복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미소를 지었다. A사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수출은 작년대비 약 1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환율 상승 및 원가 절감으로 내년 수출 회복 예상”

미국 및 브라질 등으로 휴대폰 케이스 등을 수출하는 B사는 현재 회사 경영이 정체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양적완화에 따라 미국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환율이 오른다면 2015년에 수출은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사는 “올해 제품의 원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경영을 이어나갈 것”이며 “환율이 안정을 찾는다면 올해와 내년 수출이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테이퍼링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경제불안심리에 따른 내수위축(32.5%)을 첫 손에 꼽았다. 이어 '미국 경기의 위축(27.7%), '물가원자재가 부담 증가(20.4%), '신흥국 경제불안(12.3%)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 19.8%, 복수응답>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수요 감소로 수출 어두워”

미국으로 제지를 수출하는 울산 소재 C사는 양적완화 축소에 따라 올해 미국경기가 위축돼 수출이 지난해보다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C사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계속 강화되면 미국내 시장수요가 감소돼 수출이 더 힘들어 질것으로 보인다”고 한숨 쉬었다.

“원자재가는 오르고 수출 물량은 줄고”

비닐봉지·봉투를 수출하는 D사는 테이퍼링 영향으로 수출제품 원자재가는 오르고 수출 물량은 하락해 수출이 10%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D사 관계자는 “올 초에 세운 수출 계획이 현재 무산되거나 수출 물량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흥국과 달리 경제 펀더멘탈 탄탄해 충격 크지 않아” ... “금리상승 대비책 마련해야”

조동철 대한상의 경제분과 자문위원(한국개발연구원 교수)은 “앞으로도 테이퍼링이 지속되겠지만 신흥국과 국내경제 간의 펀더멘탈 차별성이 부각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세계경제에 테이퍼링이 불안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리도 언젠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 우리나라와 취약 신흥국의 주요 경제 지표 (2013년,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GDP	재정수지/ GDP	단기외채/ 외환보유액
한국	2.8	1.4	4.6	1.7	37.3
인도	3.8	10.9	-4.4	-8.3	38.1
인도네시아	5.3	7.3	-3.4	-2.2	52.7
터키	3.8	7.7	-7.4	-4.1	115.7
남아공	2.0	5.9	-6.1	-4.4	61.0
브라질	2.5	6.3	-3.4	-3.0	9.4
아르헨티나	3.5	10.5	-0.8	-3.8	67.6

★ 자료 : IMF, CEIC


실제, 테이퍼링 영향으로 미국과 신흥국의 금리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국내 금리안정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테이퍼링 관련 정부에 바라는 정책에 대해 가장 많은 기업들이 ‘시장금리 안정’(29.4%)을 꼽았다. 이어 ‘원자재가 안정’(28.3%), ‘환변동리스크 지원강화’(24.5%), ‘신흥국 수출마케팅지원 강화’(22.3%)를 원하고 있었다. <복수응답>

기업 60% “현재 경영환경 좋지 않아” ... “올해 매출 지난해와 비슷” 46%

한편, 현재 기업경영 환경을 묻자 ‘좋지 않다’라는 응답이 60.0%로 ‘좋다’(40.0%)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올해 매출 전망에 대해서는 ‘비슷할 것’(46.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29.1%,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이 24.5%로 집계됐다.

기업들의 경영애로 요인에 대해서 ‘수요 감소’(35.5%), ‘임금·원자재가 등 원가상승’(31.3%), ‘신규수익원 미확보’(26.0%), ‘자금조달문제’(20.1%), ‘환율불안’(15.4%) 등을 차례로 꼽았다. <‘노사관계 악화’ 4.2%, 복수응답>

향후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로 기업들은 ‘내수시장 활성화’(38.4%)를 첫 손에 꼽는데 이어 ‘물가·원자재가 안정’(26.3%), ‘자금지원 확대’(25.8%), ‘수출기업 지원확대’(22.0%), ‘세금부담 완화’(21.0%), ‘기업관련 규제완화’(18.7%)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사관계 안정’ 9.4%, ‘기타’ 0.1%, 복수응답>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 테이퍼링 시행, 중국 경제둔화 우려, 신흥국 경제 불안, 내수부진 지속 등 대내외 경제 불안요소들로 인하여 올해도 기업들의 경영여건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정부는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를 보일 수 있도록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금리안정과 규제완화 등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14. 1/3~10, 2014. 2/3~7
- ☐ 조사대상 : 전국 1,000개 기업
- ☐ 조사방법 : 전화 및 팩스